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 해상물류 전략, 회복력으로 재편

해진공, 컨테이너시장 영향 보고서
우회 운항 늘어 거리·비용 부담 확대
수급 중심 운임 결정 구조도 변화
선사들 복수항로·허브 전략 강화
탄력적 공급관리 새 경쟁력 부상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제 해상물류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는 일시적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면, 중동지역 리스크의 빈번함·장기화에 따라 물류 환경 자체가 구조적 재편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가 컨테이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이달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컨테이너 시장은 오랜 시간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선사들은 운항 거리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당 항로를 적극 활용해 왔다.

그러나 실제 홍해 일대의 불안정한 상



지난 5월2일 이란 반다라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상선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 /뉴시스

황이 지속되면서 주요 선사들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항 거리가 길어지고 선박운영 효율성은 낮아졌다. 여기에 중동전쟁의 여파로 기존 운영 체계에 큰 변화가 생겨났다.

보고서는 홍해 사태(2023년 이후)·호르무즈 사태(2026년)를 거치며 컨테이너

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주요 항로의 운임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항로별 수요 및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라 이 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운임 결정 방식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박 공급이 늘어나면 운임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했었다. 이에 반해, 최근에

는 ▲우회 운항에 따른 운항거리 증가 ▲선박 운영방식의 변화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기존의 수요와 공급 중심의 분석만으로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글로벌 선사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MSC는 여러 운항 경로를 확보하는 '경로 옵션' 전략으로 전환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수에즈, 희망봉 등 복수의 항로를 선택·전환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이다.

머스크와 하파로이드의 컨테이너선 운항 동맹인 제마니는 정시성(일정한 소요시간)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허브 앤드 스포크' 전략을 운영 중이다. 대형선박이 허브 항만 간 간선 운송을 수행하고, 피더선은 허브와 주변 항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운영 방식이다.

이들 사례는 기존의 효율성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

연성과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탄력적 네트워크 체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의 주요 변수로, 향후 수에즈 운하 정상화 여부 및 우회 운항에 투입된 선박의 시장복귀 속도를 꼽았다. 다만 선사들의 단계적 서비스 복귀와 감편, 선박 재배치 등 자발적인 공급 조절을 통해 시장 충격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봤다.

이처럼 외부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해,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이 곧 해운업계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우 해양진흥공사 해양산업정보센터장은 "글로벌 물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 제공 및 분석을 통해 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한전, 반도체·AI 전력공급 속도전 나선다

전사 혁신 워크숍서 실행안 논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역량 결집
선제적 전력망 구축해 적기 공급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정부의 '전기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국가 핵심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한다.

한전은 지난 13일 나주 본사에서 김동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본사 차·실장, 1·2차 사업소장 등 총 29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사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 및 하반기 로드맵 점검 ▲100% 전력 서비스 회사 구현을 위한 CS 혁신방안 발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혁신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전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 대표되는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전력공급 속도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13일 나주 본사에서 열린 '2026 전사 혁신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전

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전은 수요지 어디에서나 적기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전력망 구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변전소와 송전선로 입지 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입지 선정 단계별 지자체 재정 지원 기준을 세분화해 전력망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신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력망 조기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 내부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한전은 일선 현장을 이끄는 사업소장의 역할을 '고객·청렴·안전 최종 책임자'로 재정립해 현장 중심의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 편의 창출에 기여한 초혁신 성과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보상은 성과보상체계 혁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동철 사장은 워크숍에서 "AI와 반도체로 인한 산업구조 대변환 시기에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은 한전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한 경쟁의 에너지 신시대를 맞아 첨단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전력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전기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행을 최전선에서 선도하고 전력 신기술 기반의 생태계 혁신을 견인해 글로벌 톱 유틸리티로의 재도약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서부발전, 대전산단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산업부 자급자족 사업자에 선정
20년간 운영, 중부권 RE100 확대

한국서부발전이 정부가 주관하는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을 주주하며 중부권 분산에너지 확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서부발전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2026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운영사업' 공모에서 대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전 산업단지에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 에너지 설비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

해 노후 산단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RE100 대응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부발전은 이번 사업에서 핵심 사업자로써 기획부터 구축,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특수목적법인(SPC) 운영과 분산 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을 맡는다. 특히 대전 산단에 설치될 태양광 발전설비와 AI 기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통합 운영하며, 준공 이후에는 약 20년간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여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서부발전은 지난 2023년부터 군산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풍부한 분산 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하우를 쌓아왔다. 서부발전은 군산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과 사업 역량을 토대로 이번 대전 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 전환 역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부발전은 이 같은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을 전국으로 넓히는 동시에, 중부권을 중심으로 수열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대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 선정은 군산 산업단지에 이어 노후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롯데케미칼·HD현대오일뱅크, '대산 1호' 제동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공식 통보
LDPE·EVA 시장 결합 심사 착수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산 1호' 기업결합에 제동이 걸렸다. 규제당국이 해당 기업결합으로 국내 석유화학 제품 시장 내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및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기업결합이 국내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및 EVA(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공식 심의 절차가 개시됐고, 이날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가 송부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

이 합병준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해 공동 최대출자자가 되며, 양사가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은 이 결합으로 인해 농업용 필름·식품 용기 등에 쓰이는 'LDPE' 시장과 신발 밑창·태양전지 필름 등에 쓰이는 'EVA'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수평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해 피심인들에게 경쟁제한 우려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심인들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인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K-푸드 美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22일 온라인 수출 설명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공유에 나선다. aT는 이달 22일 오후 2시 '미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미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 및 현지 규제 변화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는 현장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실무 전략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국 수출환경 변화 및 비관세장벽 현황 ▲FDA 시설실사 대응방안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 대응 방안 ▲라벨링 및 성분사용기준 문제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다.

미국 현지 전문가도 설명회에 직접 참

여한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수출 전 사전 점검사항, 부적합 발생 원인, 기업 대응방법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시장은 K-푸드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수출액이 8억564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도 11%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외 제조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라벨링 검증 등 수입 심사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수출 기업의 현지 규정 이해와 사전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온라인 설명회에는 미국 수출에 관심 있는 기업이면 장소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관련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